

## 빌레레 엑스트라-플레이트: 클래식을 재해석하다

블랑팡(Blancpain)에게 있어 럭셔리란 과시가 아닌, 감성적인 것이다. 블랑팡 매뉴팩처는 클래식  
의 대명사인 빌레레(Villeret)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정제되고 세련된 신제품으로 이를 다  
시 한번 모습 증명한다. 이 엑스트라-씬 워치가 시와 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기본으로의 회귀를  
표현한다.

1980년대초부터 우아함과 섬세함이 빌레레 모델의 특징을 대변해왔다. 새로운 빌레레 엑스트라-  
플레이트(Villeret Ultraplate) 워치도 예외는 아니다. 컬렉션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와 개성을  
고수하면서 더욱 모던한 얼굴을 지녔다. 빌레레 스타일은 섬세한 라운드 형태의 더블-스텝 베젤,  
빛나는 다이얼, 컷-아웃 세이지 앞 모양으로 정교하게 완성한 스타일리시한 바늘, 골드 소재의 아  
폴리케 로마 숫자 아워 마커, 그리고 매력적인 슬림 케이스 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.

블랑팡은 빌레레 엑스트라-플레이트를 통해 가독성과 정확성은 더욱 높이면서 이전보다 더욱 얇  
은 케이스의 모델을 선보였다. 유명한 1150 칼리버를 베이스로 한 새로운 핸드 와인딩 11A4B 인  
하우스 무브먼트는 짝을 이룬 배럴 두 개와 고성능 헤어 스프링을 탑재한 덕분에 4일 파워리저브가  
가능하다. 이러한 구조 덕분에 시와 분 모두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일관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 
가능하다. 특히 사용자가 시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블랑팡은 새로운  
빌레레 엑스트라-플레이트에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를 탑재했다. 미니멀한 다이얼의 레이아웃을  
해치지 않기 위해 뒤편에 인그레이빙했다. 사파이어 케이스백이 보호하고 있는 무브먼트는 시계  
다이얼의 순수함을 반영해 매우 섬세하게 데커레이션했다.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브리지는 전  
통적인 코트 드 제네브(*côtes de Genève*) 모티브를 새겼고, 가장자리를 베벨링 처리했다. 오로지 시  
계를 소유한 이만이 감상할 수 있는 이러한 하이엔드 피니싱은 브랜드의 철학, 그리고 고귀한 타임  
피스에 대한 브랜드의 비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.

18K 레드 골드 혹은 스틸 케이스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빌레레 엑스트라-플레이트는 지름 40mm,  
두께 7.4mm로 선보인다. 골드 버전에는 오팔린 다이얼과 브라운 악어가죽 스트랩을, 스틸 모델에  
는 화이트 다이얼과 블랙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. 빌레레 엑스트라-플레이트는 또한 케이스  
와 동일한 소재의 밀 마이유(*mille mailles*) 메시 스타일 브레이슬릿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다. 이  
렇게 네 개의 새로운 제품이 블랑팡의 아이코닉한 빌레레 컬렉션에 합류했다.